전매가능, 직주근접… 3.3㎡당 2149만원 가성비 ⬆

분양 하이라이트

신길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
중도금·이자후불제 혜택까지

신길·보라매·신풍역 등 인접
포스코 론칭 스마트기술 적용

매서운 한파에도 연말 분양 막차를 타기 위한 예비청약자의 열정은 뜨거웠다. 지난 6일 찾은 서울 신길동에 들어서는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견본주택. 이곳을 찾은 내방객들은 젊은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을 원하는 30~40대가 많았다. 아기를 안고 남편과 함께 견본주택을 찾은 박주영(35)씨는 "현재 살고 있는 신길동에 새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해서 방문했다"며 "직주근접이 가능해 꼭 청약할 생각"이라고 했다.

포스코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파크프레스티지'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더샵 파크프레스티지는 전 세대가 분양가 9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중도금에 이자후불제 혜택을 제공했다.

신길뉴타운은 이번 서울 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등기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799가구 분양, 전 세대 분양가 9억원 미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45-40 일대 신길뉴타운 3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더샵 파크프레스티지'는 지상 최고 32층 9개동 799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A㎡ 103가구 ▲59B㎡ 34가구 ▲59D㎡ 19가구 ▲84TA㎡ 83가구 ▲84TB㎡ 68가구 ▲114㎡ 9가구 등 총 31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49만원이다. 전용 59㎡의 경우 5억2000만~5억6300만원, 전용 84㎡는 7억1200만~7억5200만원, 전용 114㎡는 8억5700만~8억98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전 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선호도 높은 평면구성과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일부 세대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되며, 4베이 특화평면도 선보인다. 타입에 따라 현관 창고장, 올인원 드레스룸이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6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더샵 파크프레스티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분양관계자가 단지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견본주택에는 59A㎡과 84TA㎡, 84TB㎡ 3가지 평면이 마련됐다. 분양관계자는 "84TA㎡는 84TB㎡에 비해 다용도실이 넓고 공간활용성이 큰 반면 84TB㎡는 주방이 넓어 6인용 식탁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59A㎡ 주방은 발코니 확장은 필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비좁았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 비용은 1430만원이다.

◆신림경전철 2022년 개통, 11일 1순위 청약접수

'더샵 파크프레스티지'에는 포스코건설이 올해 업계 최초로 론칭한 주택분야 스마트 기술 '아이큐텍(AiQ TECH)'이 적용될 예정이다. 카카오홈 서비스와 연계해 세대 내 각종 정보를 음성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어하고, 화재와 침입을 감지하는 스마트CCTV 등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다.

또한 지하철 1·5호선 신길역뿐만 아니라 7호선 보라매역, 신풍역과도 인접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입주는 2022년 7월이다"라며 "신림경전철이 같은 2022년에 개통되면 서울지방병무청역이 가장 가깝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단지 커뮤니티시설로 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조성된다. 탁구장,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존과 북카페와 키즈룸, 독서실 등을 통합한 에듀존, 어린이집, 경로당 등 퍼블릭존을 마련해 주거편의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인근에 영신초, 대영중·고가 있고 타임스퀘어, IFC 등 대형 유통시설과 메나골근린공원, 보라매공원이 인접해 있다.

한편 '더샵 파크프레스티지'는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어 19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3-3(도산공원 옆)에 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外人매도에 국내 주식형펀드 ⬇

주간펀드동향

외국인 매도로 국내 증시가 부진한 탓에 국내주식형펀드도 약세를 보였다. 다만 인덱스 유형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은 이뤄지고 있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11월29~12월5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2.85% 내렸다. 인덱스주식 코스피200(-2.82%) 등 모든 유형이 하락했다.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형펀드로 5710억원의 자금 유입이 이뤄졌다. 다만 수익률 감소로 순자산은 1조1270억원 줄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0.67% 하락했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신흥유럽 지역의 펀드가 4.31%로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고, 인도(-1.50%), 베트남(-1.46%), 신흥아시아(-1.41%) 지역의 펀드는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자금 유출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 주간 총 29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순자산은 1890억원 줄었다.

해당기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A'(0.35%)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에서는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가 4.93% 수익률로 수위를 기록했다.

한편 해당기간 코스피는 전주 대비 2.73% 하락한 2060.74포인트를 기록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만 1조5473억원이다. 21거래일 연속 외인 매도 우위가 이어진 것과 함께 대북 리스크, 미국의 남미 관세부과 등의 이슈가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1.01%, MSCI 신흥국(EM) 지수는 전주 대 0.72% 하락했다. /손엄지 기자

이베스트證, 빅데이터 MTS로 또 한번 혁신

국내 최초 온라인 증권사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차세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내놨다. 공매도 현황, 외국인 매수·매도 상위 종목 등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능가하는 기능을 MTS에 담았다. 국내 최초 빅데이터 MTS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최근 대한민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주식거래 어플리케이션 '마인(MINE)'을 내놨다. 20년에 걸친 증권 정보기술(IT) 노하우를 집약한 2세대 MTS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MINE은 주식매매기능, 투자정보 검색 및 맞춤 투자정보 서비스(투자정보 큐레이션), 개인화 맞춤화면 서비스(VIEW)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ID만 있어도 로그인이 가능하며 지문인증 기능도 갖췄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가지 기술이 기존 증권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정보 큐레이션,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마케팅, 금융어플리케이션 화면표시 등이다. 해당 기술은 현재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베스트투자증권 MTS 'MINE"에서 제공하는 투자정보 큐레이션 화면.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 한 화면에 모아 볼 수 있다. /MINE 캡처

먼저 투자정보 큐레이션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회사 측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다"면서 "사용자 종목 분석이 편리하도록 정보 매칭을 통해 투자자에게 맞춤형 투자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본인과 관련도 높은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다.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마케팅 서비스'는 미리 설정된 마케팅 시나리오를 기초로 예상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행동정보 또는 거래정보를 분석한 다음 이뤄진다. MTS가 투자자만의 프라이빗뱅커(PB)가 되는 셈이다.

마지막 특허는 '금융어플리케이션 화면표시'다. 원래 화면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화면을 볼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HTS 사용자들이 MTS사용을 불편해했던 이유는 여러개 창을 띄울 수 없다는 점이 컸다. 하지만 MINE은 기존에 보던 종목 정보창을 띄워둔 채로 주식거래 창을 열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HTS 기능을 MTS에 그대로 담았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금감원, 외부감사인 대상 '회계현안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회계감독 현안과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기말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시장의 현황과 위험요인을 진단해 새로운 외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및 향후 회계감독방향을 설명할 방침이다.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부실감사와 관련된 지적사례를 설명해 감사인에게 재발방지 및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도 촉구한다. 최근 테마감리 실시결과와 시사점을 전파하고, 내년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등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대상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품질관리 책임자 등이다. 참가신청은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팝업창 통해 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삼성자산운용 '보이는 ELF 1호' 모바일 판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보이는 주가연계펀드(ELF) 1호'를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모바일로 직접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펀드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삼성카드+앱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EUROSTOXX)50, 니케이(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4.70% 수익을 추구한다.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여부가 결정된다.

최초기준가격 결정일(12월 16일) 이후 6개월, 12개월이 지나는 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 이면 연 4.70% 수익으로 조기상환된다. 18개월, 24개월에는 85% 이상, 30개월은 80% 이상이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한 종목이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 상환되지 않는다.

만기 상환될 경우(36개월), 최종기준가격 결정일에 세 기초자산 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14.10%(연4.70%)내외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어느 한 종목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의 만기 수익률 내외로 손실이 발행한다. /송태화 기자 alvin@